

# Market Intelligence

1.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.....	1
2. 주요 통계 .....	3
3. 중국의 對 아프리카 진출 전략과 시사점 .....	4

## 주요 동향

## ◇ 美Fed 엘런 의장, 양적완화조치 규모감축 지속 표명

- “경기전망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만 테이퍼링 강도를 조절 가능. 다만, 성급히 결론 내지 않을 것”(美상원 청문회 발언)

## ◇ EU 집행위원회, 유로존 금년 성장률 전망 1.1% → 1.2% 상향

- (FT, WSJ) 내년 성장률 1.8% 전망. 실업률은 금년 12.0%, 내년 11.7%로 전망. 인플레이션율은 금년 1.0%, 내년 1.3%로 전망

## ◇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(TPP) 협상, 구체적 합의 없이 종료

- 관세, 지적재산권, 국영기업, 정부조달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합의 없이 종료
- (요미우리紙) 美·日은 농산물과 자동차의 관세철폐 문제로 대립
  -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폐지기간 단축과 5대 농산물\*의 관세철폐 예외 인정 요구, 미국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 주장
  - \* 쌀·보리·쇠고기·유제품·설탕

## ◇ 작년 시가총액 세계 20대 기업에 신흥국 기업은 단 1개

- (블룸버그) '12년 4위였던 중국 국영석유회사 PetroChina 14위 기록  
⇒ 신흥국에서의 대규모 자금유출에 따른 주가하락 등에 기인
  - 중국 공상은행 22위, 한국 삼성전자 27위

## ① 외환시장

- (원-달러, 원-엔) 원화는 월말 수출업체 달러 매도 및 외국인 주식 자금 유입 등으로 달러화 대비 강세, 엔화 대비 약세
- (엔-달러, 달러-유로) 美 달러화는 우크라이나 정정 불안에 따른 엔화 강세로 엔화 대비 약세, 유로화 대비 소폭 강세

구 분	'13년말	'14. 2. 21	'14. 2. 28	전주비
₩/US\$	1,055.4	1,072.1	1,067.5	△4.6
₩/100¥	1,002.3	1,045.9	1,049.5	3.6
¥/US\$	105.30	102.51	101.72	△0.79
US\$/€	1.3736	1.3713	1.3698	△0.0015

## ② 채권시장

- (韓 국채금리) 美 국채금리 하락과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소폭 하락
- (美 국채금리) 우크라이나 정정 불안 및 입찰 호조 등으로 하락

구 분 (%)	'13년말	'14. 2. 21	'14. 2. 28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2.86	2.88	2.85	△0.03
미국 국채(10년)	3.03	2.73	2.65	△0.08

## ③ 주식시장

- (韓 KOSPI) 美Fed의장의 'QE 축소 지속' 표명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및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상승 [(2.21) 1,957.83 → (2.28) 1,979.99]
- (美 DJIA) 2월 美 제조업과 소비 지표\*의 호조에 힘입어 상승 [(2.21) 16,103 → (2.28) 16,314]

\*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(PMI): 59.6(1월) → 59.8(2월), 전망치(56.4)

톰슨-로이터/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: 81.2(1월) → 81.6(2월), 전망치(81.5)

## 2 주요 통계

- ① **경상수지(1월)** :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월(64.1억달러)보다 28억달러 감소한 36.1억달러 흑자
- 상품수지 흑자는 전월 56.9억달러에서 33.2억달러로 축소
  - 서비스수지는 운송 및 건설수지의 흑자감소로 전월 4.4억달러 흑자에서 5.9억달러 적자로 전환
- ② **산업생산(1월)** : 건설업,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월대비 1.4%p 증가, 전년동월 대비 1.2%p 증가
-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0.1%p 증가, 전년동월 대비 3.8%p 감소
  -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8.2%로 전월에 비해 0.9%p 상승
- ③ **BDI지수**: 1,258로 전주대비 83point 상승
- 대서양의 중형선 부문은 침체가 지속되나, 중국 중심의 대형선 활동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시황 상승
  - HRCI 지수는 전주 대비 0.6point 상승한 508.7
- ④ **유가**: 1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이후, 2월말 미국 원유 수입량 감소 전망 등으로 WTI油를 제외하고 소폭 하락

(US\$/배럴)

유 종	2월 21일	2월 28일	전주비
WTI유 현물	102.30	102.56	0.26
Brent유 현물	110.09	108.93	△1.16
두바이유 현물	106.57	105.39	△1.1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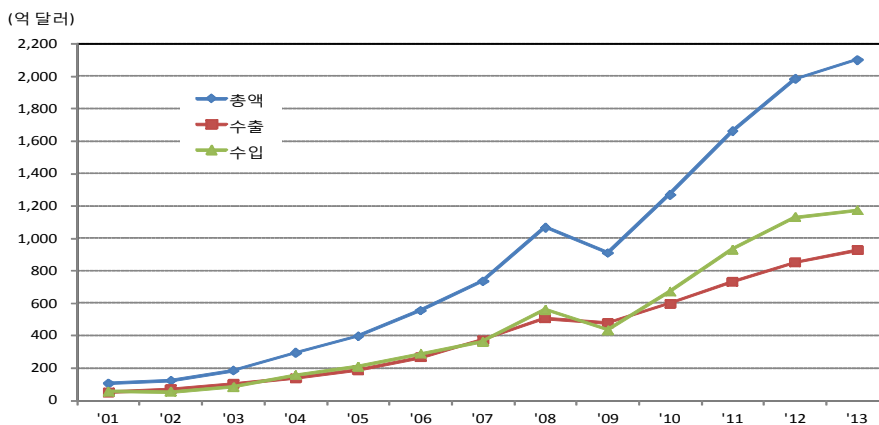
- ◆ 고도 경제성장을 거듭하며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진출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의 진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.

## 1. 진출현황

□ [교역] 중국의 對 아프리카 교역규모: 106억 달러('01)에서 2,102억 달러('13)로 12년간 19.8배 증가

- 교역 총액의 아프리카 점유율 : 2.1%('01) → 5.1%('13)
- 수출은 자본재와 소비재 중심, 수입은 원자재 중심

중국의 대 아프리카 무역액 추이 (2001~13년)



자료: 중국국가통계국

□ [투자] 중국의 對 아프리카 직접투자 규모: 217.3억 달러 ('12년말 누계, 중국 전체의 5%)

※ 1) 우리나라의 對 아프리카 교역규모는 동 기간 중 46억 달러('01)에서 170억 달러('13)로 3.7배 증가

\* 교역 총액의 아프리카 점유율: 1.6%('01) → 1.6%('13)

2) 우리나라의 對 아프리카 직접투자: 2013년 9월 말 기준 총누계의 1.4%

## 2. 진출전략

### 1) 원조에 기반한 수주활동: 우대차관을 활용한 상생

#### □ 무상원조에서 우대차관으로 원조의 중심 이동

- 무상원조가 권력층을 위한 전시성 건설(대통령궁, 대형 경기장)에 치중되어 일반 국민에 혜택이 미치지 않는다는 비판 제기
- 우대차관 제공은 1995년부터 중국수출입은행(ChinaEXIM)이 전담 창구 역할을 맡으면서 증가 : 50억 달러('06) → 200억 달러('12)
- 경제효과가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생력 기반 강화에 역점

※ 2000~11년 중 1,673개 프로젝트에 총 750억 달러 규모의 원조 제공

중국의 2000~11년 중 아프리카에 대한 국가별 원조 (우대차관 포함)

국가	원조총액(억 달러)	주요 내역
가나	114 (15.2%)	교통, 위생, 교육 개발 (2010년, 55억 달러)
나이지리아	84 (11.2%)	인프라 건설 (2006년, 54억 달러)
에티오피아	54 (7.2%)	댐 건설 (2009년, 23억 달러)
수단	54 (7.2%)	철도 건설 (2007년, 14억 달러)
모리타니	46 (6.1%)	원유 탐사, 하수도 시스템 (2006년, 40억 달러)
앙골라	42 (5.6%)	내전으로 파괴된 인프라 재건 (2004년, 15억 달러)
적도기니	38 (5.1%)	원유 개발 (2006년, 27억 달러)
짐바브웨	38 (5.1%)	발전소 건설 (2004년, 10억 달러)
카메룬	30 (4.0%)	상수도 시스템 (2009년, 8억 달러)
남아공	23 (3.1%)	광산 개발, 인프라 건설 (2011년, 23억 달러)
기타	227 (30.3%)	(미지원국: 감비아, 부르키나파소, 스와질랜드)
총 합계	750 (100.0%)	

자료: AidData.org &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.

- 중국의 對 아프리카 경험은 중국-아프리카 협력포럼을 통해 구체화

#### 중국-아프리카 협력포럼(FOCAC)

- 2000년부터 3년마다 개최 ⇒ 대 아프리카 정책의 창구
  - 39개 빈곤국 상품의 중국 수입시 무관세 적용 (2005년)
  - 만기가 도래한 빈곤국의 채무 수시 탕감
  - 국가개발은행(CDB)이 중국-아프리카발전기금(2007년, 현재 50억 달러) 및 아프리카 중소기업 대출기금 조성(2009년, 현재 20억 달러)
  - 3년 단위 우대차관 한도 설정: 2012년 200억 달러 (종전 100억 달러)

## □ 중국 기업이 원조대상국 정부 발주의 인프라 건설공사 수주

### ○ 우대차관 등을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턴키 방식으로 수주

- 중국에서 대규모 인력, 기자재, 기술, 물자 등을 송출

※ '11년 중국의 해외 수주 계약총액의 32.2%가 아프리카 정부 발주 프로젝트

## 2) 직접투자의 활성화: 아프리카의 자생력 강화

### □ 초기에는 광업과 에너지 부문에 투자 집중

#### ○ 자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한 광업 부문에 집중

- 업종별 비중: 광업 30.6%, 건설업 16.4%, 제조업 15.3% 등

### □ 투자분야의 다양화, 합작투자의 적극 수용

#### ○ 최근 금융, 제조업, 서비스업, 농업 등 투자분야 확대로 고용 창출

#### ○ 단독투자 위주에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적극 수용으로 변화

## 3) 금융지원 강화: 아프리카의 자금 부족 완화

### □ 중국수출입은행(ChinaEXIM): 우대차관과 연관된 수주 지원

#### ○ 주력 지원 부문: 철도, 도로, 발전·송전 등 인프라

- 케냐 철도 건설(40억 달러), 나이지리아 2개 발전소 건설(6억 달러) 등

### □ 중국-아프리카개발기금(CADF): 합작투자 중점 지원

#### ○ 2006년 10억 달러 규모로 출범 → 2012년 50억 달러로 증대

#### ○ 투자방식: 지분투자, 전환사채와 우선주 매입을 통한 합작

- 투자기간: 10년 이내 → 현지 파트너에 지분 등 매각

\* 중국의 시장 잠식에 대한 아프리카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변화

### 3. 시사점

- 아프리카 경제개발을 위한 하드웨어 분야 지원 병행 전략 필요
  - 개혁개방 초기 중국이 경험한 자금 부족, 산업기반 취약, 인프라 빈약 등의 문제를 아프리카 국가들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유
    - 원조, 투자를 통한 자금 지원으로 인프라 구축, 산업기반 육성
  
-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진출: 자원보유국 등
  - 자원보유국: 나이지리아, 적도기니(원유), 탄자니아, 모잠비크(천연가스), 콩고민주공화국(다이아몬드, 코발트), 남아공(우라늄, 크롬, 백금), 가봉(망간) 등
  - 인구 규모에 따른 소비시장 성장잠재력: 나이지리아(1.8억 명), 에티오피아(0.9억 명), 콩고민주공화국(0.7억 명), 남아공(0.5억 명), 탄자니아(0.5억 명), 케냐(0.4억 명) 등
  - 지역별 경제대국, 지역협력체 주도국: 케냐, 탄자니아(동아프리카 공동체), 가나, 나이지리아(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), 남아공, 잠비아(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) 등



## < 참고 > 일본의 對 아프리카 진출 현황과 전략

### □ 對 아프리카 경제협력은 중국에 비해 현저히 부진

- 일본의 총 대외무역액에서 아프리카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  
: 2001년 0.9% → 2006년 1.3% → 2012년 1.7%

\* 2013년에도 1.6%(수출의 1.2%, 수입의 1.9%)로 추정

- 2013년 교역규모 추정치 = 249.8억 달러
  - 수출 89.1억 달러, 수입 160.7억 달러로 일본측의 무역역조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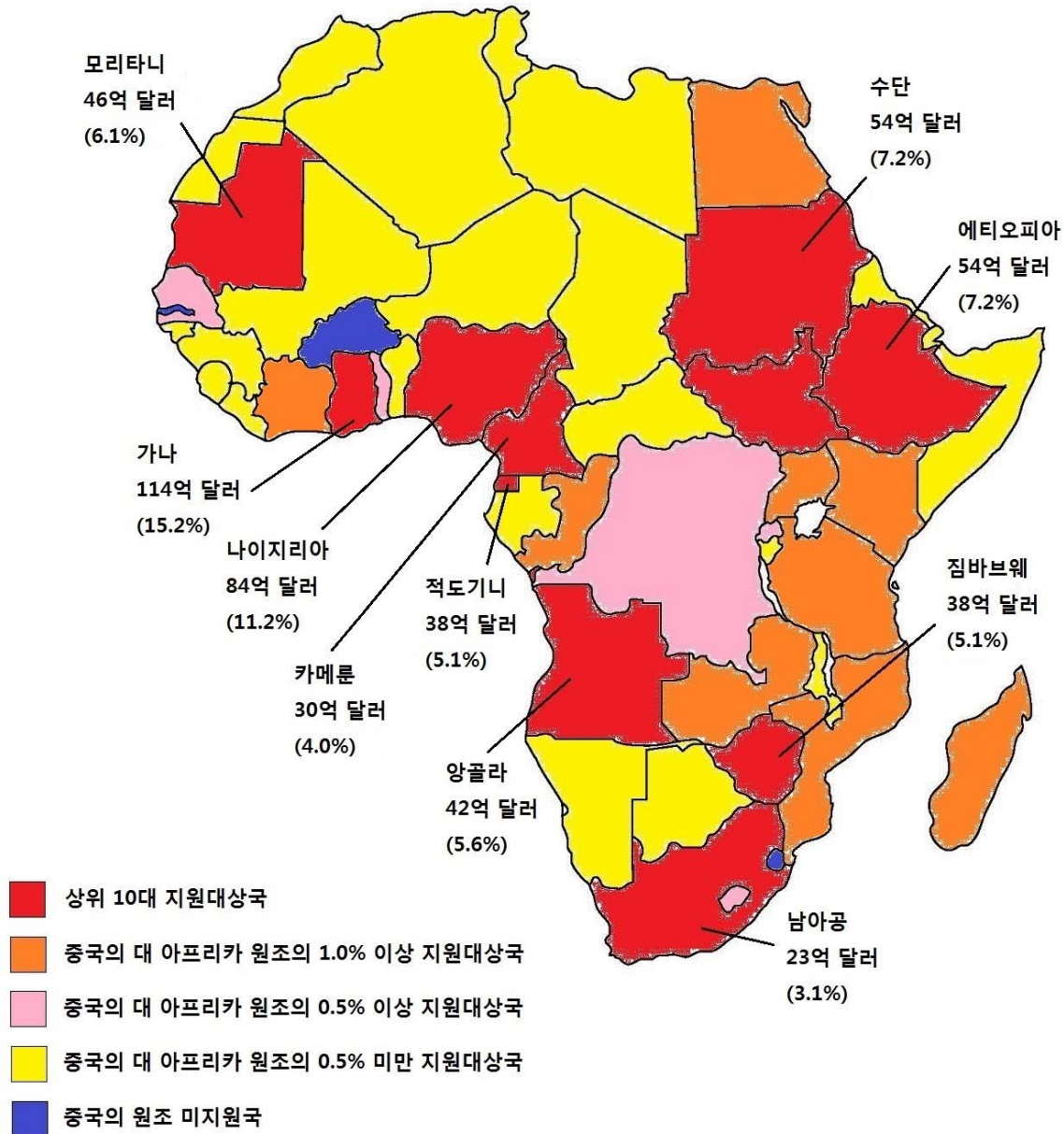
### □ 최근 ODA를 통한 자원개발 협력 등 관계 강화 추진

- 아베 총리, 2014년 1월 아프리카 3개국 순방
  - :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우호세력 조성, 막대한 정부개발 원조(ODA)를 통한 자원개발, 일본 기업 진출을 위한 시장 선점 목적
  - 모잠비크 : 5년간 700억 엔 규모의 ODA 제공
  - 코트디부아르 : 내전 피난민 지원금 0.8억 달러 제공
  - 에티오피아 : 지열발전소 건설차관 제공, 난민대책에 0.1억 달러 제공

### □ TICAD(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)

- 일본 정부, UN, 세계은행, UNDP, 아프리카연합(AU) 공동 주최 (1993년 제1회 개최, 이후 5년 간격으로 개최)
  - 아프리카 국가들과 높은 수준의 정책협의 및 개발계획 추진 지원
- 일본의 對 아프리카 정책 공표의 장인 동시에 아프리카 개발에 관한 국제 포럼의 성격
  - 2004년에는 TICAD 정상회의와 별도로 TICAD 아시아·아프리카 무역 투자회의(AATIC) 개최 ⇒ 아프리카를 “원조의 대상”이 아닌 “비즈니스의 대상”으로 생각하는 방향성의 전환
  - 2013년 6월 제5회 TICAD에서 향후 4년간 아프리카에 3.2조 엔 규모의 지원 약속

## 중국의 2001~11년 對 아프리카 국가별 원조 지도



자료: AidData.org &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.

- \* 미지원국은 감비아, 부르키나파소, 스와질랜드 ⇒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자, 2011년 말 당시 대만과의 수교국이라는 공통점
- \* 2014년 2월 현재 아프리카 국가 중 대만과의 수교국은 부르키나파소, 상토메프린시페, 스와질랜드 (감비아는 2013년 11월 14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)